

2013
08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인터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58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배려계층에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ADR 체험과 언론사 견학 등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턴십

04 인터뷰

“단기적 성과나 정책보다는 근본적 가치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
- 이경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06 위원동정

07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08 인문학 산책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녀를 걱정하는 존재다

09 신 동의보감

여름철 피부 관리

10 위원단상

너의 운명이 보여

11 달라진 法 이야기

사례로 보는 민법 개정안

12 조정후기

공직자의 민원인 이해 구하기

13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비 내리는 섬진강 그리고 남도의 맛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 사람 | 2013. 08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8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식악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배려계층에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7월 15일 경기중앙변호사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조정·중재심리 참석이 곤란한 당사자에게 무료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날 협약식에는 권성 위원장, 고연금 중재부장(수원지법 부장판사)을 비롯해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및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과 부회장,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 협약식에서 권성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도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관리구제의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장성근 회장은 “공익 활동에 대해 변호사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며 “본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무료변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지난 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3월 전북 및 충북 지방변호사회와도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ADR 체험과 언론사 견학 등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턴십

● 해가 갈수록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올해는 ADR체험과 언론사 견학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한층 다양해졌다.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주제로 한 교육 후 모의조정을 통해 ADR을 체험하거나 언론사 견학을 한다.

● 2013년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은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8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7월 19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화여고·용인외고 학생들이 권성 위원장(앞줄 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단기적 성과나 정책보다는 근본적 가치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

이경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 한국방송광고공사 기획부장
- 동아일보 논설위원
-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 공보처 차관
- 제15대~제18대 국회의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현)



해직기자 출신으로 공보처 차관 시절 케이블TV 시대를 연 주역. 제15대부터 내리 4선을 한 국회의원. 이제 방송통신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 돌아온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 4·19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4월 19일 사회학 개론 첫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나가자!”하는 소리를 듣고 선배·동기 20여명과 함께 첫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정을 나서 당시 국회의사당인 태평로와 현 청와대인 경무대 앞까지 진출해 최초 발포와 피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라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당시 경찰들이 쏜 총에 소방차 위에서 시위를 하던 고교생들이 추락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훗날 혁명 참여자들이 만든 회고록에 ‘벚꽃처럼 떨어졌던 4·19 영령들’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께 건의해 4·19 ‘의거’를 ‘혁명’으로 바꾸고, 지난 2010년 혁명 50주년에는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광화문 광장에 4·19를 추모하는 기념탑을 세우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요즘도 당시 순수하게 참여했던 사람들과 ‘4월회’라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언론계에 입문하신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ROTC 소위로 임관해 포병장교로 관측초소(OP, Observation Post)에서 복무했는데 저는 주로 VIP들께 브리핑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은 군사령관이 와도 눈도 꿈쩍 안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올테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고보니 동아방송 기자들이 개국 1주년을 기념해 ‘155마일 전선 이상없다’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상 하던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며칠 뒤 제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앵커가 ‘지금까지 이경재 소위였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사단장도 별벌 떠는 영향력있는 언론사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ROTC 근무가 인연이 되어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 1967년부터 1980년, 그리고 해직기간을 지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시고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정계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 당

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있다가 불혹의 나이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되었는데 그 때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4년간 실망과 좌절로 방황하다가 겨우 복직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아니라 '신동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1985년 총선에서 신민당의 돌풍이 일었는데 제가 민주화 운동의 두 대부이신 김영삼·김대중 씨에 관한 기사를 과감하게 썼고, 덕분에 신동아가 속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이 되어 대선 캠프에도 들어가고 김영삼 정부 초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 국회의원 시절 국회 내 테니스 동호회모임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테니스를 즐겨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세에 비해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테니스 말고 별도로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요.

테니스 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무릎 수술을 한 이후에는 테니스를 치지 못하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요즘은 건강관리를 위해 가급적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배트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에는 반신욕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바둑 두는 것을 즐겨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없다보니 가끔 바둑TV를 보는 정도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 '삐삐밴드'의 여성 보컬이자 스타일리스트인 이윤정 씨가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에 설치미술가인 사위를 두셨습니다. 가족 구성이 특이한데 가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가족 구성입니다. 딸과 사위는 기존 음악과 무용, 미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융합'한 전혀 새로운 퍼포먼스를 해 나가고 있고, 며느리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해외에 판매하며 한류를 수출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진로에 반대도 했지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선택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지금은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딸이 그저 한 때 멋에 겨워 가수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틀에 박힌 것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낯선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당찬 모습이 기특합니다.

저 역시 젊은 사람들과 소통, 오픈마인드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를 보면 현장 방문을 활발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연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경영 환경은 녹록치 않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다들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도와주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첨예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같습니다. 사업자 각자의 입장에서 제도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요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셔든 늘 강조하는 원칙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 즉 '국민편익'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기술발전으로 인한 이익은 특정 사업자만 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누구도 이익을 제기하기 어려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부터 '공정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신데요.

무리하게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언론관이자 철학입니다.

과거 이런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젊은 시절 해직기자의 아픔을 겪었고, 정권을 비판한 책이 판매금지 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으며,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균형된 사고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재원구조 개선 문제, 방송 심의 문제 등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경영 능력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방송사 내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례로 최근 MBC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 '낙하산', '정권 개입' 등 논란이 거의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은 공보처 차관 및 국회의원 시절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공보처 차관 시절 편집기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 강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0년 모 지역일간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공천헌금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조정이 잘 되어 1면에 정정보도문을 크게 게재해 제 명예를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의 일도양단식의 판단이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제도와 기구를 국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 사이버공간의 윤리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에 ‘선플정치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선플 달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하셨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이버윤리 문제를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악플)을 통한 인권유린이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선플운동을 시작했고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선플의 날’로 선포해 매년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규

제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아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캠페인을 통해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인터넷윤리 골든벨 퀴즈를 출제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외에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위원장이 되시고 100일 동안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참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온 느낌도 납니다. 자평하기에는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공보처 출신이고 국회에서도 방송통신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업무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과 상임위원들의 훌륭한 인품과 실력 덕택에 출범 당시 우려와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미래부와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출범하자마자 MOU를 체결하고 기금도 공동 관리하기로 하는 등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 협력을 다지기 위해 조만간 고위급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계획이며 부처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 문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외부에서 나쁘지 않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나 정책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승민 (홍보팀 차장)

위원동정

COMMISSIONERS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맡아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7월 15일 민병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가 주관한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손 위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소통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COMMISSIONERS



‘한·중 미디어 산업의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김정탁 위원(서울제6중재부, 언론학회 회장)은 7월 9일 오전 10시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중국 언론학자(베이징대 신문방송연구회)를 초청해 ‘한중 언론 산업의 진단과 발전전략 정립’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위원회는 중국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 위원은 7월 19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미디어 연구의 지형을 성찰하고 인문학적 접근과 가치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인문학 기획 제2차 세미나 : 커뮤니케이션과 매체’를 개최했다.



방송법과 IPTV법 법제정비를 위한 연구 참여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방송법과 IPTV법 법제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법제정비 연구반’에 참여한다. 주 위원은 방송분야 전문가로 연구팀에 합류해 케이블, 위성, IPTV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소식

NEWS

국방대 안보과정 재학생 대상 교육 실시



위원회는 국방대에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2013 안보과정 재학생 210명(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공기업 고위직, 현역 장군 및 대령)을 대상으로 국가위기관리 언론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요 정책관리자로서 언론 브리핑 및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언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위기 시 대언론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앞서 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과 국방대 박삼득 총장(중장, 육사35기)은 국방대와 위원회 간의 상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간담을 나눴다.

학교내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교사직무연수 실시



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통한 학교내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조정, 중재, 협상,

문제해결 등 갈등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교과와 함께, 명문가의 교육철학 및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인문교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사직무연수는 지난 3월 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2차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ADR 교육 홈페이지 오픈



올해 초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위원회가 7월 11일 ADR 교육 홈페이지 (<http://edu.pac.or.kr>)를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ADR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웹표준과 웹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하여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DR 교육 홈페이지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의 배너, 팝업창 등을 통해서도 방문할 수 있다.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6월 30일 각급 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을 모아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판결 통계 분석과 함께 2012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판결 전문이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유형별로 수록되어 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녀를 걱정하는 존재다



최효찬
칼럼니스트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면 평생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해고당한 아버지 윌리 로만은 2만 3,000달러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교통사고로 죽기로 작정한다. 계획은 실행된다. 아버지는 죽고, 남은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버지가 져야 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우선 아들 회원이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 오늘 아침 조금 늦게 출근을 하면서까지 사무실 근처 보험 회사에서 챙겨 온 팸플릿과 상품 설명서, 약관 따위를 살살이 훑었다. 아무리 자신이 죽고 난 뒤라 해도 아들이 경제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로 인해 공부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눈감아도 못 봐 줄 노릇이었다. 우선 두 개의 보험 중 하나인 사망보상금과 적금을 아들 명의로 하여 교육보험에 들도록 할 생각이었다.”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는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버지 정수의 이야기』다. 가족에 헌신적이었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아버지는 쓰러져 가는 순간까지도 남편 없이 살아갈 아내와 아빠 없이 지낼 아이들을 걱정한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죽은 후 생계를 책임질 아내를 걱정한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내와 자녀를 걱정한다.

반면 레프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인생의 공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인공인 고등법원 판사는 어느 날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고 결국 죽어간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왔는데 이제야 그들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는다. 주위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그의 지위였고 부유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것이다. 죽음이 임박해서도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그는 가장 괴로웠다. 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직장동료들은 단지 자기가 아니라 그가 죽는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아내조차 자신이 받을 연금 규모가 줄어들까봐 걱정이고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결혼계획이 엉망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반은 죽음 직전에서야 지상에서 얻은 시간을 낭비했고 겉으로는 품위가 있지만 속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인식한다. 자신의 성장, 교육, 일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 눈에 중요해보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주위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그의 지위인 판사였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서조차 부유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가족은 도구적인 존재로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번은 ‘개인파산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의 카톡을 보게 되었다. 두 딸을 둔 그는 딸들이 어릴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문구를 썼다. “전에는 ‘깜찍이’, 지금은 ‘끔찍이’.” 필자는 이 글을 보고 왠지 모를 듯한 통증에 감전된 기분이었다. 마치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두 딸을 둔 아버지가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제면업자로 성공한 고리오네는 프랑스판 ‘딸 바보’였다. 고리오네는 매년 6만 프랑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자였지만 자신을 위해서 1,200프랑 이상을 쓰는 법이 없었다. 그의 행복인 아나스타지아와 델핀 두 딸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썼다. 두 딸은 승마를 배웠고 고급 마차(지금의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두 딸이 원한다면 고리오네는 얼마를 지불해서든 딸들의 욕망을 채워주었다. 그 대가로 딸들이 아버지를 한 번 껴안아주면 충분했다. 고리오네는 애지중지하며 키운 두 딸을 거액의 지참금과 함께 귀족과 자산가에게 시집보냈다. 이후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나자 아버지를 내쫓았고 쓸쓸하게 죽어 가는데도 딸들은 아버지를 찾지도 않는다. 딸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으로 알았던 딸 바보 아버지의 비극적 최후다. 소설에서처럼 철없는 자녀를 둔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녀를 걱정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소설에서처럼 이런 아버지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아버지로 살아보면 알 테지만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다.

여름철 피부 관리



조한경 교수
관동 의대 명지병원 피부과

우리나라 피부과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피부질환 5개는 무좀,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두드러기, 여드름이다. 피부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기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5대 피부질환 역시 여름철에 호발하고 악화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이다.

무좀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여름철에 피부과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된다. 감염된 부위에 따라 이름을 붙이며 주로 발바닥이나 사타구니에 많이 발생한다. 곰팡이에 의한 또 다른 질환으로 역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루러기가 있다. 대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 환경에서 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바로 깨끗이 닦아내고 피부를 뽕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

아토피피부염은 대개 겨울에 악화되는 질환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더운 여름에 휴가지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주위 환경이 덥게 되면 겨울철 못지않게 고생을 할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농가진, 전염성연속종 등이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서 잘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 취침 시 적절한 온도와 습도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루피부염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지루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더위로 인하여 땀을 흘리는 경우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휴가지에서 마음이 들떠 평소보다 늦게 자고 과도한 음주 등으로 무리하게 되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휴가지에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즐기자.

두드러기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생 중 한 두 번은 경험할 수 있는 흔한 피부질환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특히 노출이 많고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는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한다. 피부가 다양한 모양으로 부어오르는 팽진이라는 병변이 몸 여기저기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속이 불편해지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의 위급한 상황도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식의 경우 해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 이 음식으로 인해 두드러기가 생겼던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기존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위로 인하여 피지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시로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분비된 기름기를 닦아내야 한다. 적절하게 치료가 안된 여드름은 흉터를 남기어 외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휴가지에서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흉터가 남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여름철에는 위의 피부질환 외에도 강한 햇빛으로 인한 피부화상이나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벌레물림을 흔히 보게 된다.

피부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12시에서 3, 4시까지는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굳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을 최대한 가리고 옷은 짙은 색으로 입으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고 충분히 바르는 것이다. 피부가 벌개지는 정도의 화상이라면 찬 물로 찜질만 해도 좋아지나 물집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심하게 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벌레에 물린 경우는 대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를 바르면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균에 감염되거나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예사롭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끝으로 여름철의 강한 햇빛은 기존의 기미가 악화되거나 검버섯, 흑자 등의 잡티가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발생하게 하므로 다른 계절보다 세심한 피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너의 운명이 보여



홍 숙 영 위원

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영화 '대체'에 나오는 말이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생각과 말, 행동, 습관이 결국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치 우리의 직업이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직업적 특성이 몸에 배게 된다. 몇 년간 기사를 하다가 교수로 방향전환을 한 이후 3년 전부터 언론중재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자, 교수, 중재인의 직업적 특성을 익히게 되었다.

초창기 기자생활을 할 때,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으로 인해 나는 늘 일에 빠져있었다.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문제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부분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급기야는 이러다가 인간관계마저 나빠지겠다는 위기감마저 갖게 되었다. 이후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게 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평가하는 이 직업적 특성이 나를 훈계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의 일상에서 일의 순위를 정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습성이 생기면서 이것이 굳어질까 봐 경계하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일이 생겼다. 바로 언론중재위원. 법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의 삶에 '법'이 들어오고 경청과 판단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사실 법을 멀리하게 된 데는 유학생생활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 탓이 크다. 파리2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할 때 석사과정에서 전공필수로 커뮤니케이션법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알아듣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시험 문제가 법조문을 들어 해석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낙제. 재시험을 치렀지만, 성적이 조금 올라 겨우 통과할 정도였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을 하게 되면서 자주 법조문을 찾아보고, 법적 근거를 따지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의심해보고 다른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새롭게 얻게 된 이 일은 TV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다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법정 드라마 장르로 구분되는 SBS 수목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시청하면서 법률용어를 익히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판결을 이끄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짱변'이라 불리는 국선변호사 장혜성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검사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로 뛰며, 판사가 고심하며 판결을 내리는 현실세계의 모습이 펼쳐진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소년이라는 환상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사건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이성적이며 또 때로는 로맨틱하게 풀어내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의 일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의 결정으로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경청하며, 언론의 권력을 경고하는 우리의 일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보다 따뜻하며, 보다 정의로운 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사례로 보는 민법 개정안



김문중
연속교육팀, 변호사

I 사례

올해 대학교 새내기인 주리엣(1994. 6. 30.생)양은 남자친구인 노미오 군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단둘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물론 부모님께는 동성친구들과 배낭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공항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 티켓을 들고 다정한 포즈로 셀카를 찍었다. 마침 그들 옆으로 인기스타 우연히 씨가 화보 촬영차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고, 이 모습을 한 언론사가 '공항패션'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하였다. 주리엣 양은 자신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러 가지로 난감하다고 한 친구에게 말했고, 그 친구는 부모의 대리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부모님 몰래 다녀온 여행이라 부모님의 대리는 곤란한 주리엣 양, 과연 부모님의 대리인만 조정신청이 가능할까?

II 판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은 성년에 이르는 나이를 기존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추었다.(제4조)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미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그 기준을 19세로 보고 있었다. 이제 민법의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대학 새내기나 재수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면, 언론조정절차에도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인정에 관한 기준들이 적용되므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대리에 의해서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리엣 양은 개정 민법에 의하면 성년이므로 부모의 대리 없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II 사례

작년 여름, 성격 차이로 이혼한 이몽룡 씨와 성춘향 씨.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던 그들 부부는 이몽룡 씨가 친권을 갖기로 합의했고, 이몽룡 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였다. 성춘향 씨는 이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고, 그 곳에서 재혼한 상태이다. 그러던 중 올 7월, 이몽룡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몽룡 씨의 어머니는 문상을 온 옆집 고시생으로부터 이러한 경우 성춘향 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를 책임지고 싶어 했던 이몽룡 씨의 어머니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성춘향 씨가 친권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고시생의 말처럼 성춘향 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될까?

II 판례

친권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이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의 경우라면 부모가 갖게 되고(민법 제909조 제1항)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부모의 합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동조 제4항) 문제는 사례와 같이 단독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자(이몽룡)가 사망한 경우이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경우 부모의 다른 일방(성춘향)이 친권자로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고 최진실 씨의 사례가 대두되면서 친권의 자동 부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즉, 친권을 다른 부모의 일방이 자동적으로 갖는 경우 유산이나 다른 부모 일방의 상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 민법은 당연히 다른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다른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동법 제909조의2 제1항),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춘향 씨가 당연히 친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몽룡 씨의 어머니가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공직자의 민원인 이해구하기



최은진 조사팀
서울제5중재부 조사관

“민원인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휴, 저도 몇 차례나 사과했죠. 술 한잔 마시기로 약속도 했는데, 갑자기 검찰에 고소했어요.”

파출소장이 민원인과 먹살시비를 벌였다고 한 뉴스통신사가 보도했다. 파출소장이 수렵용 총기 수령 과정에서 민원인의 먹살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목 부위의 충격이 가해져 병원에서 2주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먹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며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원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심리에 앞서 피신청인측과 통화해보니 민원인은 파출소장이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감정이 상해있다고 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신청인이 파출소장으로 있는 지역은 농작물을 먹어대는 새들이 많아, 유해조수에 한해 경찰서에서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었다. 수렵기간과 포획장소를 명기한 수렵허가가 떨어지면 평소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던 총기를 출고해가는 식이다. 그런데 민원인이 총기출고신청을 하던 날 그가 보유한 총기수첩에는 수렵지역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파출소장인 신청인은 최근 총기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해 시민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민원인은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총기를 출고해 갔는데 그날따라 부임한지 갓 한달이 지난 파출소장이 총기 출고를 거부하고 본인의 먹살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갑자기 심한 욕을 하고 나가는 민원인에게 파출소장으로서 오해를 풀고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민원인의 옷을 잡고 앉아보라고 했을 뿐 먹살을 잡은 바 없고 총기 출고를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확인해보니, CCTV·동료직원·민원인 및 동행인 조사, 민원인과 파출소장 대질조사를 벌인 결과, 상해·폭행·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공직자로서 감정이 격해 반말을 한 부분(불친절)에 대해서는 주의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신청인으로부터 사건당일 CCTV 녹화분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보니, 신청인의 주장대로 먹살을 잡은 적은 없고 옷을 잡은 사실은 확인했다. 이에 중재부에는 ‘총기수첩의 기재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관할 경찰서에 확인한 바는 있으나 총기출고를 거절하지 않았고, 파출소를 나가려는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옷을 잡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을 뿐 먹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벌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정정보도가 게재되어 잘못된 보도로 인해 훼손된 신청인의 명예는 회복되었겠지만, 파출소장으로서 업무를 꼼꼼히 하였을 뿐인데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것을 감내해야 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에게서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해야하는 ‘공직자의 비애’를 목격한 것 같아 못내 씁쓸했다. 분쟁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풀려 신청인이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기를 바란다.

비 내리는 섬진강 그리고 남도의 맛



김윤정 광주사무소장



맛의 고장 전라도에서 생활한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상 차려져 나오는 남도한정식을 시작으로 담양의 떡갈비, 함평 육회비빔밥, 목포 민어회, 영암 갈낙탕, 나주 곰탕, 벌교의 꼬막정식 등 셀 수 없이 많은 향토 음식들을 마음껏 맛보았다.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먹어야할지 때로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폭우가 쏟아지던 7월 첫 주말, 잠시 비가 주춤해지자 드라이브 삼아 떠난 섬진강변. 이번 나들이 메뉴는 참게매운탕이다. 사실, 평소 육식을 선호하는 필자는 굶을지언정 풀은 먹지 않는다는 신조와 생선은 고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맛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남편은 정반대로 생선을 포함한 어패류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생선 마니아로 극과 극의 입맛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남편이 모처럼 참게매운탕을 먹으러 가자는데 한번 정도는 양보하기로 했다. 크게 내

키진 않았지만 기꺼운 표정으로 따라 나섰다.

광주에서 구례까지 가는 길에 여러 차례 비가 쏟아졌고, 장대비를 헤치고 도착한 곳은 섬진강변에 위치한 참게매운탕 집. 구례구역을 지나 곡성으로 들어서니 섬진강변에 나란히 자리 잡은 식당들이 눈에 뜨인다. 모두 참게매운탕집들이다.

우리가 찾아간 곳도 그 중 한 집이었다. 당연히 대표 메뉴를 골랐다. 은어튀김과 참게매운탕. 식구 수가 많지 않아 일단 작은 사이즈로 주문했다. 식당 입구 수족관에서 현란한 춤사위로 우리를 반겼던 은어들이 잠시 후 바삭한 튀김옷으로 몸단장을 하고 식탁 위에 누웠다. 늦은 점심에 허기가 치민다. 급하게 은어튀김으로 손이 갔다. 한 입 베어 문 은어튀김의 통통한 속살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평소 맛보았던 튀김 요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은어튀김으로 입맛을 돋우고 나서 드디어 참게매운탕이 나왔다. 커다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매운탕을 보니 군침이 돈다. 시래기와 미나리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살짝 풀어 들깨가루로 맛을 냈다. 마냥 진하지만은 않았다. 매운탕 국물에도 절제된 맛이 있구나 싶다. 화학조미료로 길들여진 입맛에 전해진 순수한 자연의 맛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뚝배기 가득 들어있는 참게. 통통한 참게 알을 베어 무니 포근하고 구수함이 입안에 가득 고인다. 오도독한 식감마저 느껴진다. 여덟 살 입 짧은 아들 녀석도 매운탕 국물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비 내리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가족이 함께 먹었던 참게매운탕.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잊을 수 없는 남도의 맛이였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부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도로 '부산어린이집'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조정신청, 알림 기사로 조정성립

A통신사 외 8개 인터넷매체는 '부산시 수영구 소재 모 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은 언론사가 보도의 제목을 '부산 어린이집'이라고 표기하여 '부산어린이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들은 제목에 쓰인 '부산 어린이집'은 고유명사가 아닌 지역명이고 보도 본문에 사건 발생 어린이집의 주소, 원장의 성과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중재부는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등으로 보도의 제목만을 본 독자들은 오해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도 시 주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알림 형식의 보도를 조정안으로 제시,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성희롱범죄 기사에서 개인의 트위터 아이디를 동의 없이 노출, 100만원 배상

B주간지는 유명한 인권운동가의 성희롱 범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해여성인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가 나온 화면을 캡처해 이를 동의 없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사건을 모르고 있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보도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중재부는 신청인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혜진 _ 여름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언론사람 7월호 표지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호기심으로 펼친 언론사람의 첫 페이지는 성범죄 보도에 관한 토론회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TV나 인터넷포털에서 자극적인 성범죄 보도를 접하며 '언론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언론피해 구제기관과 법률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단순히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많은 '언론사람', 주변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네요.

배을순 _ 7월호 <침묵이라는 언어>를 읽고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야만 서로 의사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는데 반드시 소리로 내는 말을 해야만 상호간 교감과 소통이 되었다고 해서는 안됨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상대방이 처한 환경과 여건, 상황을 충분히 배려한다면 이는 이미 소통되었다고 보며 침묵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열과 위로도 느끼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와 부적응한 자들의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고 모든 언어들이 침묵 속에서 베일이 벗겨지면서 진실과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면서도 상대방의 내면과 사실을 다 알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허선숙 _ 모든 내용이 알차고 유익해서 몇 번씩 읽었지만 그 중 여름이어서 그런지 (신 동의보감..여름 식중독 제대로 알고 다스리기)편을 관심있게 읽고 냉장고에 스크랩 해두었습니다. 해마다 더운 여름이 오면 날씨가 무더워 대충대충 먹고 차가운 음식만 찾아서 설사로 고생을 많이 하곤 했는데 이렇게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설사의 원인과 치료 및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물은 안전하게 끓여먹고 생수를 사용할 것, 위생처리가 잘 된 얼음 사용, 음식을 먹기 전 손 씻기...등등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많은 공감을 느끼며 올 여름에는 수칙을 꼭 지켜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R 교육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 기법에 관하여 공무원, 교사,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언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학생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체험을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 언론분쟁 사례 소개
- ADR 제도에 대한 이해 및 ADR 체험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여름방학 기간
- 시간 : 3~4시간
- 장소 : 위원회 강의실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수시교육팀 (02-397-3062~3064)

※ 프로그램 내용은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